제16권 제2호(2018) 3-28

일반논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 : 반론기술에 의한 여론의 구조분석*

최인숙(고려대)**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방법은 한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추출한 후, 먼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을 찬성자와 반대자 두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 전자에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단점을, 후자에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장점을 정보로 제공하여 반론을 시킨 후 의견을 재차 묻고, 이때 의견이 변화한 양상과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반론에 직면해 초기의견을 바꾼 응답자는 29.3%로 나타났고, 이 때 의견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초기의견', '원자력과 정치에 대한 관심',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정보인지', '정치성향', '학력'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은 응답자의 초기의견이 찬성이고, 정치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정보인지가 낮을수록 의견의 확신도는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토론을 시켜 관심을 고조시킨 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여론, 민주주의, 신고리 5, 6호기, 반론, 정보인지, 관심, 의견 확신도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6657). 이 논문에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e-mail: sookjuliette@yahoo.fr

www.kci.go.kr

I. 서 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여론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해 여론의 향방을 파악한다. 프랑스와 일본은 매년 1,000본 이상의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발표 된다[1]. 한국에는 공식 통계자료가 없지만, 여론조사업계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12년에는 세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신은희 2013). 이처럼 여론조사의 사용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여론의 개념과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론이 정치 무대에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이다. 이 때 여론은 정부에 대한 외부적 비판이나 합법성의 원칙으로서 “이성적 재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리 잡았다(Blondiaux 1998). 계몽 사상가들은 보편성, 객관성, 합리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공중(public)’의 개념을 덧붙여서 ‘여론(public opinion)’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여론은 개인을 초월한 집합적 토론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론의 개념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변하였다(한국언론재단 2000). 1936년 미국대선에서 크게 성공한 여론조사는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보급되면서 여론은 인구집단 내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의견을 집적한 것을 의미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론은 본래

---

1) 2017년 일본 내각부가 출판한 ‘여론조사 연감’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정부기관 및 정부 관계기관, 지자체,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대학, 언론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1,192개였다.
(참고: https://survey.gov-online.go.jp/genkyou/h29/h28-genkyou/1-1.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일)
프랑스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 제 1차전에서 400개의 여론조사가 공표되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이다(출처: 라디오 프랑스).
(https://www.francetvinfo.fr/politique/un-nombre-record-de-sondages-publies-pendant-la-campagne_1614373.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일)

www.kci.go.kr

언어적 행동으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른 총체이지, 단순한 개인의 사적 의견을 집적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정치학자 그라위쯔(Grawitz 1972)와 브르디외(Bourdieu 1973)는 여론조사의 사회적 확산을 여론의 개념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결코 '여론'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브르디외는 그의 논문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다(L'opinion publique n'existe pas)"[2]에서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의견들을 수집하여 인공물(artefact)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여론조사의 중요한 기능은 개인 의견들의 순수한 총합으로서의 여론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의 상태를 결코 백분율로 환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브르디외의 이런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응답자들의 정보량이나 정치적 지식, 그리고 관심이 제각기 다르고,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정치학자 잴러(Zaller 1992)는 이러한 상태를 피조사자가 조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응답하고 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여론조사는 전체 모집단에서 확률표집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사전에 토의나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질문을 하여 개개인의 응답을 구한다.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론조사는 여론을 측정하는 도구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부류

2) 한국어판 참조: 신미경 역. 2004.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학의 문제들』 pp. 241-253. 서울: 동문선.

www.kci.go.kr

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여론조사가 아닌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여론을 심도 있게 측정해야 한다는 부류이다.

그 동안 여론 연구의 대세를 장악해 온 미국의 컬럼비아 학파와[3] 미시간 학파는[4] 최소주의(minimalism)[5]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대중의 특성을 '정치에 관심이 없고, 명확한 자기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다(Sniderman et al. 2002).

반면에 스탠퍼드 대학의 스나이더만(1993)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여론 연구를 진행하여 '유권자는 한계가 있지만 자기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최소주의자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반(反)최소주의(anti minimalism: Page & Shapiro 1992; Piazza & Sniderman 1992; Piazza et al.1991). 이들 반최소주의자들은 조사 여건을 실제 상황에 보다 더 근접하도록 설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고안했다. 다시 말해 반최소주의자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토론과 논쟁을 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재현하였다.

이처럼 대중의 특성은 여론조사의 방법론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은 시도이지만,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실험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여론의 특성을 분

---

3) 대표적인 학자는 베렐슨(Berelson)과 라자스펠드(Lazarsfeld)이다.

4) 대표적인 학자는 캠벨(Campbell), 컨버스(Converse), 밀러(Miller), 스톡스(Stokes) 등을 들 수 있다.

5) 이들은 대중의 특징을 정치적 관심과 지식은 최소 수준이고, 정치 개념에 대한 이해력 또한 저조하고, 정치적 선호에 있어서도 지속적이지 못하며, 정치적 태도의 일관성도 최소라고 하여 최소주의자(Minimalist)라 불린다. 컬럼비아 학파와 미시건 학파 이외에 미니말리스트로는 리프먼(Walter Lippmann), 브르디외, 각시(Daniel Gaxi), 잴러(John Zaller) 등이 있다.
Cf: "Mass publics: 1) minimal levels of political attention and information; 2) minimal mastery of abstract political concepts, such as the liberal-conservative axis; 3) minimal stability of political preferences; 4) and minimal coherence of attitudes((Paul Sniderman 1993).

www.kci.go.kr

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유권자들의 초기의견은 정치적 관심, 정보인지 등의 요인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새 정부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게다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은 안전의 위험이 크고, 핵폐기물 또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숙의조사인 공론조사를 활용했다. 정부가 이런 방법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한 여론을 측정한 것은, 국가의 주요 사안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민의 수렴을 보다 민주적이고 신중히, 그리고 투명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 같은 기존여론조사에 대한 정부의 문제 제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여론조사를 응답만을 수집하는 평면적 장소가 아닌 정치적 논의의 공공장소(공론장의 시뮬레이션)로 삼아 응답자들에게 조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의와 반론을 시킨 후, 그들의 의견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최종 도출되는 여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질문으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새로운 방법론인 '반론기술(The technique of counter-argument)'을 최초로 고안한 학자는 하이먼(Hyman 1954)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킨더와 샌더스(Kinder&Sanders 1990)가 이를 응용하고 발전시켜 민감한 이슈인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에 대한 실험조사에 이용하였

www.kei.go.kr

다. 이 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기존여론조사에서처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정치 토론과 유사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에 의한 토론이다.

스나이더만과 피아자(Sniderman & Piazza 1995)는 이 기법을 재차 응용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역시 민감한 인종 문제인 '흑인지원을 위한 공비지출'에 활용하였다. 스나이더만과 피아자가 개발한 반론기술은 먼저, 피조사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그 의견에 따라 미리 준비된 반론에 직면해야 한다. 스나이더만은 이 기법을 이용하여 파리 시앙스포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프랑스의 민감한 사안인 '실업자 수당'에 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Sinderman et al. 2002). '반론기술'은 정치토론장에서처럼 정보를 주고 상호작용을 시킨 후 응답의 추이를 비교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응답자들의 신념을 흔들어 제시한 의견이 그들의 진짜 의견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의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연구는 아직 한국 학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다. 그간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투표형태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학력과 소득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들이 많았다(박찬욱 1993; 어수영·곽진영 2000; 정준표 2008; 서복경 2010). 또한 유권자들의 정치 관심도, 투표 효능감 등 정치심리학적 변수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보다 정치 관심도라는 사실을 밝혔고(강경태 2003), 사회경제적 지위가 선거관심도를 통해 투표참여율을 높인다는 것 또한 밝혔다(정준표 2008).

최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정치의식·정치정보와 투표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정치참여가 정치적 불만, 정치정보 습득량과 경로, 정치 관여도

www.kci.go.kr

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고(이재신·이영수 2009), 유권자의 경제수준과 교육주순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미치는 인과적 경로를 분석하고 정치정보가 경제·교육수준과 정치참여 사이의 인과적 고리"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문우진 2009, 2011).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치정보가 유권자들의 인지수준 및 이슈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정보 수용과정에 대한 실험연구도 있었다(지병근 et al. 2013). 이처럼 정치의식, 정치정보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여론의 개념이나 여론조사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었다.

물론 국내 학자들 중에서 기존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그간 꾸준히 진행되었다. 2000년 4월에 치러진 16대 총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고(권혁남 2001), 2006년 지방선거 때 공표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국 선거여론조사 방법의 문제를 검토하고 방법론적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조성겸 et al. 2007). 더 나아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기관별로 결과가 큰 차를 보이자 이 편향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도 있었다(박종희 2013).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여론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험조사를 통해 개인의 의견형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여론의 특성을 재조명해 볼 것이다. 이 실험조사는 여론조사를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여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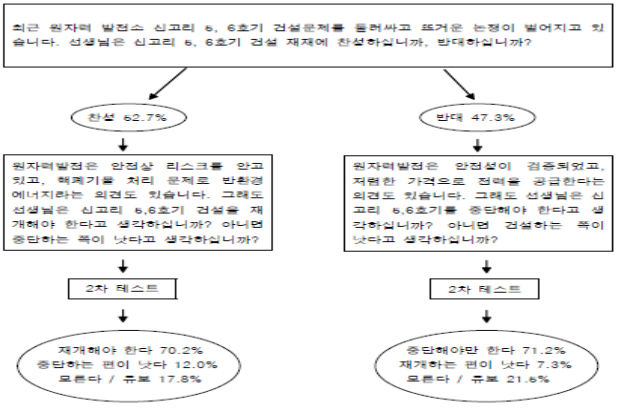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

www.kci.go.kr

뉘어 토론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주제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토론이 시작되기 전 이미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의견이 지극히 피상적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의견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다른 일부는 초기부터 자기 고유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토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참가자의 정치 능력을 고려하여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토론의 특별한 논점과 전반적인 정치적 이해를 관련시키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의 의견형성과 의견변화에는 정치적 관심이나 정보인지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조사는 이러한 원리를 재현할 수 있는 '반론기술'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여론조사 방법으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찬성하는 사람에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단점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을 반론으로 제시한 후 재차 의견을 묻는다. (<그림 1> 참조).

〈그림 1〉 Counter-argument (반론실험)



www.kci.go.kr

Ⅲ.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여론의 향방

1. 가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가장 먼저 부각된 것은 에너지 정책이다. 새 정부는 지금부터 2040년까지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원자력 발전은 그간 우리나라가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책사업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 에너지의 약 40%를 제공해 준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발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그간 원자력 발전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국민적 토론이나 논쟁의 주제가 된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한국에서는 원자력발전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 여론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들어 찬성하는 분위기가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언론이 이를 의제로 다루기 시작하자 원전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은 고조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고 3개월간 공론화하는 동안 언론은 이를 더욱 이슈화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언론의 보도량은 방대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의 향방은 찬반으로 엇갈리기 시작했고, 특히 세대별로 견해차가 크게 나타났다. 게다가 원자력발전 밀집지역인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

www.kci.go.kr

자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원자력발전의 향방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누구나 주저 없이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정작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면 유권자들은 그리 쉽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Zaller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를 쟁점화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찬성파와 반대파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장단점을 정보로 제공하고 논쟁과 토론을 거치는 동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의 폭은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원자력발전에 대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반론에 직면했을 때 그리 쉽게 의견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이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1. 응답자는 반론에 직면해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인지가 높으면 의견은 변화하기 어렵다.
3.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의견은 변화하기 어렵다.
4.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대화의 양이 많으면 의견은 변화하기 어렵다.

2. 분석방법

2-1. 데이터 개요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실시

www.kci.go.kr

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한국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공론조사가 있기 약 1개월 전에 실시된 것이다[6].

조사 시기는 2017년 9월 14일에서 19일까지 6일간이었고, 조사방법은 온라인 인터뷰 방식이었다[7]. 조사대상은 모바일 티머니 플랫폼 회원 스마트폰 알림을 통하여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242명을 추출했고, 그 중 1,000명이 최종 조사에 응했다.

조사 과정은 먼저 1,000명 전원에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각각 나누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반론테스트를 하였다.

그룹별로 사용한 설문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 전원에게 “최근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 6호기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하였다.

2차 조사: 찬성자와 반대자를 분류해 찬성자에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단점을, 반대자에게는 장점을 정보로서 각각 제공했다. 찬성자와 반대자에게 제시한 정보는 각각 다음과 같다.

---

6)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17년 10월 20일이었다.

7)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여론조사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화 된 상태는 아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치여론조사가 인터넷조사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본인의 여론’도 인터넷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www.kci.go.kr

[찬성자에게 제시한 반론]

"원자력발전은 안전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로 반환경 에너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단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자에게 제시한 반론]

"원자력발전은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설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최초 찬성자에게는 '원자력발전의 리스크와 반환경성' 요인을, 최초 반대자에게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요인을 반론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이는 최초 찬성자와 반대자에게 '리스크'와 '안전', '경제성'과 '환경성'을 각각 대비시켜 이들 요인이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2-2. 측정항목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1차 조사에서는 (1) 찬성~(4) 반대의 4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찬성자'에게 (1) 재개해야만 한다 (2) 중단하는 편이 낫다 (3) 모른다/유보, '반대자'에게는 (1) 중단해야만 한다 (2) 재개하는 편이 낫다 (3) 모른다/유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관심에 대한 지표는, 먼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선생님은 평소 정치적 문제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범

www.kci.go.kr

주로 '1.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에서 '4.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의 4점 척도를, "선생님은 평소 친구, 가족, 동료들과 정치에 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범주로 '1. 자주 한다' ~ '4. 거의 안 한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관심은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에 관한 보도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에 응답범주로 '1.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4.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의 4점 척도를, "선생님은 평소 친구, 가족, 동료들과 신고리 5, 6호기에 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범주로 '1. 거의 안 한다'~ '4. 자주 한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관심'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관심'을 합쳐 평균을 구하고 '관심'이라는 새 지표를 만들었다.

정보에 대한 지표는, 먼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인지로 "선생님은 정부가 제공하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범주로 '1. 전혀 알지 못한다' ~ '4. 잘 알고 있다'의 4점 척도를,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정보인지로 "선생님은 정부가 제공하는 신고리 5, 6호기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범주로 '1. 전혀 알지 못한다' ~ '4. 잘 알고 있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인지'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정보인지'를 합쳐 평균을 구하고 '정보인지'라는 새 지표를 만들었다.

대화의 정도는 먼저 정치에 대해 "선생님은 평소 친구, 가족, 동료들과 정치에 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범주로 '1. 거의 안 한다' ~ '4. 자주 한다'의 4점 척도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신고리 5, 6호기에 관해 "선생님은 평소 친구, 가족, 동료들과 신고리 5, 6호기에 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라는 설문에

www.kci.go.kr

응답범주로 ‘1. 거의 안 한다’ ~ ‘4. 자주 한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에 대한 대화 정도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대화 정도를 합쳐 평균을 구하고 ‘대화 정도’라는 새 지표를 만들었다.

정치성향은 ‘보수’, ‘진보’, ‘중도’, ‘모름/기타’의 네 가지 조건으로 물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를 물었다. 혼인상태는 ‘미혼’,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다’, ‘결혼했고 함께 사는 아이가 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지만 독립했다’, ‘기타’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최종 분석에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1, 없는 응답자를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의 독립변수는 의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초기의견 (반대=1; 찬성=0), 정치성향(보수, 중도, 진보, 모름/기타), 성별(남성=1, 여성=2), 자녀유무(유=1, 무=0), 정치성향, 원자력발전과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정보인지,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관심,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대화의 정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이다.

종속변수는 ‘의견의 변화’로 1차 조사에서 제시한 찬반 의견이 2차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바뀌거나 의견이 없다고 유보한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화 없음”과 “정반대로 변화”, “기타로 변화”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3. 분석 결과

먼저, <표 1>은 본 연구가 측정한 변수들의 도수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표 2>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 쪽이 더

www.kci.go.kr

많다(표 2 참조). χ^2 검정(독립성의 검정) 결과는 값이 유의($\chi^2(1)=22,76$ $p<.001$)이기 때문에, 성별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3>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과 연령을 교차분석한 것이다. χ^2 검정결과의 값이 유의($\chi^2(1)=47.60$ $p<.001$)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변수의 도수분포

변 수		N	%
초기의견	찬성	528	52.8%
	반대	472	47.2%
반론 후 의견	변화없음	707	70.7%
	정반대로변함	98	9.8%
	기타로변함	195	19.5%
정치성향	보수	171	17.1%
	중도	368	36.8%
	진보	263	26.3%
	모름/기타	198	19.8%
성별	남성	494	49.4%
	여성	506	50.6%
교육	중졸 이하	63	6.3%
	고졸	394	39.4%
	대재 대졸	480	48.0%
	대학원재 대학원졸	63	6.3%
연령	19/20대	175	17.5%
	30대	175	17.5%
	40대	204	20.4%
	50대	199	19.9%
	60세 이상	247	24.7%
자녀	유	602	60.2%
	무	398	39.8%
	유효	1000	100.0%

www.kci.go.kr

〈표 2〉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과 성별 교차분석[8)]

	찬성	반대	계
남성	298(60.3)%	196(39.7%)	494(49.4%)
여성	229(45.3%)	227(54.7%)	506(50.6%)
계	528(52.8%)	472(47.2%)	1000(100%)

($\chi^2(1)=22,76$ $p<.001$)

〈표 3〉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과 연령 교차분석

	찬성	반대	계
19/20대	72(7.2%)	103(10.3%)	175(17.5%)
30대	75(7.5%	100(10%)	175(17.5%)
40대	93(9.3%)	111(11.1%)	204(20.4%)
50대	121(12.1%)	78(7.8%)	199(19.9%)
60세이상	167(16.7%)	80(8.0%)	247(24.7%)
계	528(52.8%)	472(47.2%)	1,000(100%)

($\chi^2(1)=47.60$ $p<.001$)

3-1. 반론테스트

본 연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쟁점은 제시한 반론이 의견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효과의 유무를 보는 것으로, 피조사자가 반론에 직면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반론에 직면한 초기 의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어떤 타입의 응답자가 반론에 직면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

8)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최종 결정은 건설재개 찬성 59.5%, 반대 40.5%였다. 남성은 66.3%가 찬성, 33.7%가 반대하였고, 여성은 52.7%가 찬성, 47.3%가 반대하여 원자력발전에 더 찬성하는 쪽은 남성으로 본 분석 결과와 유사했다. 특히, 본 연구가 가장 주목했던 점은 시민 참여단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의 의견 변화였다. 시민참여단은 1차에서 36.3%가 찬성, 27.6%가 반대하였으나, 2차에서는 44.7%가 찬성, 30.7%가 반대하여 공론화 후 의견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난 것 또한 본 연구와 유사했다(http://www.sgr56.go.kr/npp/index.do 검색일: 2018년 10월 25일).

www.kci.go.kr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반론 후 의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인지,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성향(보수, 중도, 진보, 모름/기타 4가지 조건으로 제시)을 투입하였다. 그밖에 학력, 자녀유무, 수입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의견의 변화를 두 개의 범주 "변화 없음"과 "정반대로 변화"로 나누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여기서는 '기타로 변화'한 응답자는 포함시키지 않음).

3-2. 변화

3-2-1. 의견변화를 보인 응답자 유형

<표 4-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처음에 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반대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반론에 직면해 의견을 쉽게 바꾼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찬성자들에게 제시한 반론(원자력발전의 리스크+핵폐기물·반환경성)이 반대자들에게 제시한 반론(원자력발전의 안전+저렴한 가격의 전력공급 경제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견변화에 미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독립변수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인지,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정치에 관한 대화량이 종속변수인 의견변화에 미친 영향은 응답자의 정보인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쉽게 의견을 바꾸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정치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정치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화량과 의견변화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수입 역시 의견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성향도 의견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원자력에

www.kci.go.kr

대한 일본인의 여론 연구(최인숙 2012)'에서 나타난 현상과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발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이슈는 일본과 달리 진보/보수의 이념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의견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의견변화(정반대로 변화=1; 변화없음=0)	회귀계수(b)
의견(찬성=1; 반대=0)	1.023***
정보인지	-0.565**
정치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	-0.372†
정치·원전에 대한 대화량	0.225
정치성향	0.308*
성별(남성=1; 여성=0)	-0.408
연령	-0.330*
학력	-0.646**
지역	0.002
직업	-0.021
수입	-0.371†
자녀(유=1; 무=0)	0.117
상수	2.182*
유사 R 제곱	0.09

N=804 ***p<.001**p<.01, *p<.05, † p<.10

이처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의견의 변화에 미친 요인들을 확실히 밝힐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분석에서는'기타로 변화'한 196명(19.6%)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함한 또 다른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견의 변화를 세 범주(변화 없음, 기타로 변화, 정반대로 변화)로 나누어 다항

www.kci.go.kr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의견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회귀계수(b)	
종속변수: 의견변화	정반대로 변화	기타로 변화
의견(찬성=1; 반대=0)	0.893***	0.327
정보인지	-0.523*	-0.585**
정치·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	-0.337†	-1.034***
정치·원전에 대한 대화	0.141	-0.226
정치성향	0.257*	0.588***
성별(남성=1; 여성=0)	-0.452†	-0.732***
연령	-0.310**	-0.012
학력	-0.631**	-0.289†
지역	0.006	-0.047
직업	-0.023	0.058
수입	-0.383†	-0.060
자녀(유=1; 무=0)	0.048	-0.223
절편	2.374*	2.835**
유사 R 제곱	0.06	

N=1,000 ***p<.001**p<.01, *p<.05, † p<.10

참조범주는 '변화 없음'

3-2-2. 기타로 의견을 바꾼 응답자의 유형과 특성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기타로 변화'와 독립변수인 '초기의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www.kci.go.kr

러나 정보인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타로 변화'할 확률은 컸고,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적으면 적을수록 '기타로 변화할 확률은 더욱 컸다. 정치성향 요인 역시 '기타로 변화'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보수보다는 진보, 특히 자신의 정치성향을 모름/기타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반론에 직면해 의견을 기타로 바꿀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대화량은 '기타로 변화' 하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타로 변화' 하는 경향이 컸다. 연령은 '기타로 변화' 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실험조사에서 의견이 '찬성하는 편', 혹은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반론에 직면해서 초기의견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바꾸기보다 '기타로 변화'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따라서 본래부터 확고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반론에 부딪히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그만 판단을 유보해 버리는 비태도(non-attitude)를 취하는 현상을 크게 보였다.

〈표 5〉 초기의견과 반론 후 의견의 교차분석

		반론 후의 의견			계
		변화 없음	정반대로 변화	기타	
초기의견	찬성	235(86.7%)	22(8.1%)	14(5.2%)	271(100%)
	찬성하는 편	135(52.7%)	41(16.0%)	80(31.3%)	256(100%)
	반대하는 편	189(63.9%)	24(8.1%)	83(28.0%)	296(100%)
	반대	148(83.6%)	10(5.6%)	19(10.7%)	177(100%)
	계	707(70.7%)	97(9.7%)	196(19.6%)	1000(100%)

www.kci.go.kr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측정하는 도구인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실험조사를 통해 경험분석을 시도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현대 민주주의의 큰 관심사인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역할을 고찰해 보는 데 있었다. 이 주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넘어 장시간 학계의 공통된 관심사로 주목 받아 왔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브르디외는 기존여론조사는 개인 의견들의 순수한 총합으로서의 여론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의견들을 수집하여 인공물을 만든다고 비판했다(1973). 잴러 역시 대중은 조사 당시 머릿속에 스쳐지나가는 것(top of the head)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르디외와 잴러의 이러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기존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법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들과는 다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70.7%)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자기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반론에 직면해 의견을 바꾼 사람들도 약 29.3%로 나타나, 반론기술에 의한 실험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www.kci.go.kr

반론에 직면해 의견을 바꾼 사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명백히 밝혀진 것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의 변화와 정치성향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는 진보·보수라는 이념문제와 큰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최종 변수는 정치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인지, 정치성향임이 드러남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가설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가의 민감한 정책들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잴러는 정치적 인지도가 낮은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높은 유권자들도 캠페인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보에 둔감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은 자기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여론의 개념을 공허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 결과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 사안에 관심이 없고, 확실한 자기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잴러와는 달리, 원자력발전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확고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단지, 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반론에 직면해 의견을 “기타”로 바꾼 응답자들이 상당 수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초기의견이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으로, 본래 자기 의견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반론에 직면하자 의견을 보류하고 만 것은 원자력발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대중

www.kci.go.kr

에 대해서는 젤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젤러는 여론조사의 응답은 설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제시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론조사에 직면해 자기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유권자들에게는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유권자가 그러한 성향을 보인다고 일반화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여론조사를 공론장으로 활용해 본 점이다. 비록 작은 시도였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찬반의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정보로 각각 제공하고 반론을 야기함으로써 여론조사를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이용해 보았다. 이는 기존여론조사와는 달리 실제에 근접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여론조사의 방법론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학계나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도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모바일 티머니 플랫폼 회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100%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응답자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상 바이어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면접조사에 비해 고학력이거나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本多 2006). 따라서 추후 인터넷조사가 아닌 다른 조사방법으로 다양한 인적구성이 확보된 샘플을 활용하여 실험연구를 시도하고, 본 연구와 어떤 상이점이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접수 2018. 10. 30. 심사완료 11. 13. 게재확정 11. 19)

www.kci.go.kr

참고문헌

권혁남. 2001, “16대 총선 여론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출구조사와 무응답률 문제를 중심으로.”『언론과학 연구』 제 1권 제1호: 46-74.

박종희. 2013, “제 18대 대선 여론조사에 나타난 조사기관 편향.”『조사연구』 제 14권 제 1호: 1-30.

문우진. 2011. “정치의식과 불평등 투표.”『국가전략』 17권 3호: 73-93.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한국정치학회』 43권 4호: 327-349.

서복경. 2010.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현대정치연구』 3권 1호: 109-128.

어수영·곽진영. 2002. “한국인의 정치 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남성과 여성의 참여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35집 4호. 165-188쪽.

정준표.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제18대 총선과 제17대 총선의 비교.”『현대정치연구』1집 1호. 37-73쪽.

이재신·이영수. 2009. “정치정보 습득, 관여도, 정치적 불만과 정치참여 유형의 관계.”『한국언론학회』 53권 2호: 183-205.

조성겸 외 3명. 2007.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6년 지방선거 전화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 8권 제1호: 31-54.

지병근·신두철·엄기홍. 2013. “보수언론에 대한 노출과 이슈에 대한 태도의 변화: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정보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 6권 제2호: 127-155.

신은희. 2013. “2013년 KORA회원사 조사결과.”『국내조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조사협회(KORA).

한국언론재단. 2000. 『선거와 여론조사 보도』

최인숙. 2012. “‘반론기술’을 이용한 여론의 구조분석: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본인의 여론.” 『국가전략』 18권 4호: 123-153, 세종연구소.

www.kci.go.kr

本多則惠. 2006. インターネット調査・モニター調査の特質：モニター型インターネット調査を活用するための課題、日本勞働研究雜誌、 48, p. 32-41.

Blondiaux, Loïc. 1998. *La fabrique de l'opinion. Une histoire sociale des sondages.* Paris : Seuil.

Bourdieu, Pierre. 1973. "L'opinion publique n'existe pas." *Les temps modernes.* No. 318.
● 한국어판: 신미경 역. 2004.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학의 문제들』 pp. 241-253. 서울: 동문선.

Campbell, Angus, Converse, Philip E., Miller Warren E., and Stokes, Donald E.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p.206-61). New York: Free Press.

Converse, Philip E. 1975. "Public opinion and voting behavior." in Fred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s.).*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4:pp.75-169.

Gaxie, Daniel. 1978. *Le cens caché. Inégalité sculturelles et ségrégation politique,* Paris : Seuil.

Grunberg, Gérard, Mayer, Nonna and Sniderman, Paul M. dir. 2002. *La démocratie à l'épreuve : une nouvelle approche de l'opinion des Français.* Paris : Presses de Sciences Po.

Grawit, Madelene. 1972. "Les sondages d'opinion politique." in *Revue des travaux de l'Acade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125(1).

Hyman, Herbert. 1954. *Interviewing in social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nder, Donald R. and Sanders, Lynn M. 1990. "Making Political Debate with Survey Questions: The Case of White Opinion on Affirmative Action for Blacks." in *Social Cognition* 8:pp.73-103.

Lazarsfeld, Faul F., Berelson, Bernard and Hazel,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ww.kci.go.kr

Lippmann, Walter. 1925. *The phantom 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Page, Benjamin I. and Shapiro, Robert.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 Policy Pre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niderman, Paul M., and Piazza, Thomas. 1992. *The scar of ra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niderman, Paul M., Piazza, Thomas, Tetlock, Philip E., Kendrick, Ann. 1991. "The New Racis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Sniderman, Paul M. 1993. "The New Look in Public Opinion Research" in Finifter A. W. (ed.).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he State of the Discipline.* vol. 2.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p. 219-246.

Sniderman, Paul M., Jackman, Simon and Tiberj, Vincent. 2002. "Argumentation et raisonnement politique." in *La démocratie à l'épreuve*. Paris : Presses de Sciences Po.

Tarde, Gabriel. 1989. *L'opinion et la foule.* Paris: PUF.

Zaller, John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e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gr56.go.kr/npp/index.do (검색일: 2018년 10월 25일)

일본『世論調査年鑑』：全國世論調査の現況/內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編。
https://survey.gov-online.go.jp/genkyou/h29/h28-genkyou/1-1.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일)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
https://www.francetvinfo.fr/politique/un-nombre-record-de-sondages-publies-pendant-la-campagne_1614373.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일)

www.kci.go.kr

Abstract

Korean Public Opinion on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 Structural analyses of Public Opinion utilizing the Technique of Counter-Argument

Insook Choi

This study has conducted an experimental survey on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by using a dynamic method that makes it possible to exchange political opinions in order to accurately measure public opinion and gain exact results. The survey conducted the following steps: First, 1,000 interviewees over the age of 19 are asked if they are in favor of or against resuming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ey were divided into groups of a supporter and an opponent, then information about the disadvantage and advantage of Nuclear Power are provided to the supporter and opponent, respectively. After reading the counter-argument, they are asked their opinions agai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much anticipation as to how their first opinions, their interest in politics and nuclear power, their information perception of nuclear power are influenced when confronted with a counter-argument.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howed that 29.3% of the interviewees have changed their first opinion which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their first opinion, information perception, a frequency of mentioning nuclear power and politics, an inclination of politics, and education level. The interviewees who agreed with nuclear power and had lower information perception and interest tend to change their opinion more easily.

www.kci.go.kr

The result suggests that building people's interest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making them to debate is significant in a formation of desirable public opinion in a democracy.

Key words : public opinion, democracy,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counter-argument, information perception, interest, the solidity of opinion

www.kci.go.kr